



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 목장교회 나눔지

[10월, 마음에 새기는 말씀 - 열왕기상 18장 37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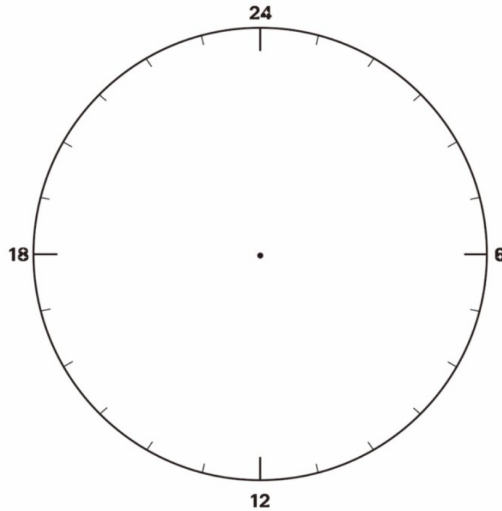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와 하나님인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아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 얼음 깨기

## 특별한 하루가 주어진다면..?

우리에게 주신 24시간은 소중한  
지요 만약,무엇이든 할 수 있는  
특별한 하루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보내고 싶은가요?

같이 표기해보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 교회행사

### 10월

- 26,28일 성례 교육
- 29-11/1 더말씀으로 가을사경회  
하나복DNA네트워크  
김형국 목사  
“교회를 꿈꾼다”

### 11월

- 1,4일 성례교육
- 5일 성례식
- 12일 성찬식
- 19일 추수감사주일/찬양축제
- 25일 결혼예비학교 시작

## 경배 찬양

##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빛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할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밤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내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도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며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 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리이라  
가는 길이 없고 어렵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 선교

## [이윤주 선교사]

### 필리핀

1. 새생명 중국인 교회가 어려운 중에 계속해서 부흥할 수 있도록
2. 타이타이에 중국인 상점 늘고 있는데, 복음 전할 담대함 지혜 주시길
3. 우상 숭배에 빠진 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도록
4. 가족들의 영육이 강건하고, 각자의 걸음이 하나님의 인도 받도록

## 소식

1. **성례식** 성례식 (11월 5일) 위한 학습/입교/세례/유아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2. **모집** 캄보디아 선교팀을 모집합니다. 일정 : 2024년 2월17일(토) ~ 23일(금)  
10월 28일까지만 신청 받습니다. (문의 : 이학엽강도사 010-6730-7517)
3. **결혼예비학교** 11/18 - 12/9(토요일,4주)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시간 : 오후 2시-7시 대상 : 결혼 예비 커플, 1년 미만 신혼 부부
4. **선교사 성탄 선물 보내기** 선교사님들에게 사랑을 모아 선물을 보냅니다.  
문의 : 김윤숙 간사 (010-3006-9638) / 상세 내용 후보 참조  
계좌 : 전북 1013-01-3001821(더미션선교회)

## 한문장 큰 울림

**기독교는 그저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아니다.  
매일 24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필리 그레이엄 (1918-2018)**

##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열왕기상 16장 31절)

북이스라엘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무려 4 번이나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여로보암(22년) - 나답(2년) - \*바아사(24년) - 엘라(2년)  
- \*시므리(7일) - \*오므리(12년) - 아합(22년)  
\* 왕조가 바뀜

여기에 나타난 모든 왕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이 왕들의 업적과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같이 듣고,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 1\_형식만 하나님, 진심은 내 맘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는 것이지요. 여로보암이 행한 주요 죄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_곳곳에 산당과 우상 제단 / 금송아지를 세움  
\_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폐하고 원하는대로 바꿈  
\_레위 사람이 아닌 아무나 자원하면 제사장으로 세움

형식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심은 자신의 맘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7명의 왕들이 보여준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왕의 어떠함을 바라보실 때 '다윗의 길'인지 '여로보암의 길'인지를 보십니다. 다윗과 같이 부족함이 있을 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눔] '형식만 하나님, 진심은 내 맘대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있나요? 말씀 안에서 외당은 부분들이 있다면 같이 나누어 봅시다.

### 2\_최상의 때이자 최악의 때

오므리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강력한 통치를 기반으로 하여, 모압을 점령하여 식민지를 삼았습니다.

아합은 이를 계승하여 더욱 찬란한 산업의 발달과 솔로몬의 영광에 근접하도록 회복시킨 왕이었습니다. 성경 본문은 이와 같은 오므리와 아합의 여러 업적에 대해서는 관심을 전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시기는 그러므로,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최상의 때였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최악의 때였습니다. 아합의 죄악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_이세벨과 결혼하고 바알을 섬기며 예배함  
\_여로보암의 죄를 오히려 가볍게 여김  
\_사마리아에 바알 신저을 쌓고 아세라 기둥을 세움

겉으로 잘 되는 것이 최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 한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눔] 나는 내 인생의 '어떠한 때'를 보내고 있나요?

각자의 표현으로 함께 나누어 봅시다.

[나눔] 내 맘 속 우선순위 5가지를 적어봅시다. 오늘 내가 생각하는 '의미있는 삶에 대한 기준'은 '말씀의 기준'과 일치하나요?

### 3\_다윗의 길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 완전히 돌아선 아합을 향하여 이전의 왕들보다 훨씬 강하게 분노하십니다. 이 상황 속에 히엘의 여리고 건축으로 인한 심판은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떠난 것과, 아합을 향한 경고의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히엘은 여리고를 새로 건축하다가 터를 쌓으며 장자 아비람이,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는 곧 500년 전에 선포된 여호수아 6:26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아합과 공동체 전체를 향하여, 다시 '다윗의 길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징벌을 받게 됩니다.

[나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목장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디에 더욱 초점을 두어야 할까요?

[기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의 원리대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같이 기도합니다.